

# 기간산업 '농업' 시스템 확 바꾼다

### 도, 디지털 과학영농·제주농업 대도약 미래비전 선포 기후변화·농촌인구 고령화·인력 부족으로 위기 국면 미래농업 선도·지속가능 청정농업 6대 핵심전략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위기에 직면한 제주지역 1차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과학영농, 제주농업 대도약'을 제주농업의 미래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기반 농산업시스템 대전환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농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인력 부족, 소비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6대 핵심 전략은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및 본격 가동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운영 ▷푸드테크 기반 제주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친환경 및 탄소중립 농업 기반 확대 등이다.

특히 도는 핵심전략과 관련해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농산물 품질 향

상 및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해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당근과 감귤을 대상으로 자율적 수급안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얻고 있다. 실제, 당근은 지난해 출하 초기 2만3000원(20kg 기준)으로 출하가격이 형성됐으나 제주당근연합회, 구좌농협 등이 참여해 시장격리와 매취사업, 가공물량 전환을 통해 올해 3월에는 5만1000원대까지 가격대를 끌어올렸다.

도는 그간의 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농산업시스템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청정농업'을 목표로 23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

농업의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 선포식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전국 최초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에 이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및 제주농업 디지털센터 개소에 맞춰 이뤄졌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올해부터 감귤, 당근, 월동무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디지털센터와 연계한 수급안정체계 확립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농업디지털센터 개소, 푸드테크 산업 육성, 환경농업의 실현, 제주형 가격안정제 실현은 제주농업의 핵심 과제"라며 "제주농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 미래농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 미래농업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제주도가 23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농업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비람부는 날 더 짜릿한 서핑 23일 제주시 구좌읍 야바미에서 서퍼들이 바람을 가르며 윈드시핑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타당성 논란' 제주첨단2단지 계획대로...

### KDI '재검토' 요구... JDC "사업 축소시 역효과, 다음달 착공"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가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타당성 재검토' 요구를 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JDC는 융·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여㎡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자체재원 3671억원, 국비 250억원 등 3921억원이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부터 토지 등 손실보상에 들어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도 마무리했다.

문제는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492억원보다 갑절 이상 늘었고 사업기간도 늦어지며 입주 수요도 부정확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수요와 타당성 분석 등

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JDC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부지 조성 규모가 비교적 과대하고 입주수요 부족, 주거시설 과잉 공급 우려에 따라 적정 투자규모와 시기에 대한 재검토, 미분양 위험 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JDC는 이같은 KDI 용역 결과에도 부지 조성공사를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KDI 재검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검토를 벌인 결과 부지규모를 축소할 경우 개발계획 재수립과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최장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으로 535억원이 추가 발생, 조성원가가 높아져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초래한다는 것이다. 입주수요 부족 문제도 수요처를 추가로 발굴하고 투자 시도 상부시설 건축계획 등과 연계해 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토지 보상일로부터 5년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 올해 5월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밀어붙이기로 방향을 잡는데 한몫했다.

주거시설도 산업단지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거시설이 축소될 경우 기업 입주 유인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했다.

JDC 관계자는 "향후 발주 및 계약 단계에서 낙찰률 적용을 통해 공사비도 줄어나갈 계획"이라며 "25일 이사회에 재검토 결과를 보고해 의결되면 다음달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 도, 인천에 선어회 판매용 가공시설 구축

### 30억 투입 양식광어 등 수산물 규격화 지원시설 준공 연내 시험운영·해협인증 받고 2025년 본격 판매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산 광어 소비 확대를 위해 인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부지 내에 선어회 판매용 가공 기반시설인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시설을 준공했다.

도는 30억원(국비 15, 지방비 9, 자담 9)을 투입해 지상 2층, 1137㎡ 규모로 가공작업장과 급속동결시설, 냉장보관시설을 갖췄다.

도는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광어 선어회 판매용 가공 기반시설을 대도심에 구축하기 위해 2022년부터 양식 수산물 규격화 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건축물을 준공한데 이어 올해 4월에 가공설비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운영할 이

시설은 연내 시험운영과 함께 해협(HACCP) 인증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포장회를 நட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등 외식문화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는 국내 양식 광어 생산량의 53%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라며 "최근 소비패턴에 대응 수도권 당일 배송을 통한 소비 시장 증대 등을 꾀하면서 제주의 청정 양식수산물인 광어 소비가 확대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이달 마감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30일 마감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 폐차시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

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은 4월말까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이상민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모, 일반모)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례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모, 일반모)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공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모, 화분모, 일반모)  
하굴 / 팔삭 / 세미늘 / 금굴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묘목공급)지정업체 (원자정비와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1년생 규격모, 2~5년생 일반모, 포토모, 화분모 분양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향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전문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 991번길1(수산리735)